

## 생명연, 전문연구단 가동

- [뉴시스] [‘선택·집중’으로 생명 연장 실현한다...생명연, 전문연구단 가동](#)
- [조선 비즈] [생명공학연구원, 노화·난치 질환 연구 집중하는 ‘전문연구단’ 운영](#)

## '선택·집중'으로 생명 연장 실현한다...생명연, 전문연구단 가동

기사등록 일시 : [2016-01-14 16:44:12]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장규태)은 노화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연구단을 선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연구단은 연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원은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획득하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로 인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이 어렵고, 연구자들이 다수의 소규모 연구과제를 수행해 연구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생명연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해 안정적 연구환경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문연구단 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명연은 오는 2018년까지 연간 주요사업 연구비의 20%(200억원)를 지원하고 연구원들의 수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사전기획과 자체 수요조사,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근골격노화제어 ▲유전체 맞춤의료 ▲위해요소감지 BNT(Bio-Nano technology) ▲항암물질 ▲희귀난치성 장애 연구단 등 모두 5개 연구단을 선정했다.

근골격노화제어 연구단은 노인성 근육감소증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퇴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유전체 맞춤의료 연구단은 유전자 발현 제어기술을 이용한 암 맞춤의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위해요소감지 연구단은 바이오 나노를 활용해 위해요소 검출 및 분석 기술, 항암물질 연구단은 항암제 후보물질, 희귀난치성 연구단은 신경계질환에 대한 한국인 유전체 표준변이 지도 작성을 통한 치료 기술 개발 등에 집중하게 된다.

생명연은 연구단이 국가·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세계적 핵심연구

기관(Center of Excellence)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장규태 원장은 "전문연구단 중심으로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고유임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전문연구단 체제를 시작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현안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issu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 생명공학연구원, 노화·난치 질환 연구 집중하는 '전문연구단' 운영

입력 : 2016.01.14 15: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이 노화나 희귀난치질환 분야에서 5개의 '전문연구단'을 선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연구단은 연구개발(R&D)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명연 연간 주요사업 연구비의 20%를 지원한다. 2018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명연은 전문연구단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수탁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대신 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다른 수탁 연구과제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전문연구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기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하에서는 연구비 지원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과제 프로젝트에 경쟁적으로 참여해야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다.

5개 전문연구단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퇴행 관련 조기진단 및 제어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근골격 노화제어 연구단'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한 난치질환 개인맞춤치료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유전체 맞춤 의료 연구단' ▲나노바이오융복합 기반 위해요소 검지·분석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위해요소감지 바이오테크놀로지(BNT) 연구단' ▲생리활성물질 기반의 혁신적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항암물질 연구단' ▲희귀난치성 유전신경질환의 진단 및 치료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희귀난치성 장애 연구단' 등이다.

장규태 생명연 원장은 "이번 전문연구단 체제를 시작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